

제주, 소 브루셀라병 청정지역 '비상'

34마리 키우는 서귀포시 농가서 1마리 의심 판정 방역당국 정밀검사 의뢰... 소 이동제한 명령 내려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인증한 소 브루셀라병 청정지역인 제주에서 이 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소가 발견돼 축산·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서귀포시 하원동의 한 소 사육농가에서 소 브루셀라병 감염 의심 판정을 받은 어미소 한 마리가 살처분됐다.

방역 당국은 살처분 한 소에서 시료를 채취해 동물위생시험소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해당 농가는 살처분한 소를 포함해 번식우(어미소) 17마리와 송아지 17마리 등 34마리를 키우고 있다. 제주도는 이 농가에

대해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다.

브루셀라병은 법정 제2종가축전염병으로 동물 뿐만 아니라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소에게서는 유산이나 사산, 불임 증상이 나타나고 사람은 발열,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제주도는 지난달 25일 혈청 검사에서 소 브루셀라병 감염 의심 증상을 처음 발견했다. 도내 가족 사육농가는 가족을 거래하기 전 혈청 검사를 의뢰해 전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서귀포시 하원동 농가의 의뢰로 지난달 25일부터 혈청

검사를 2차례 실시한 결과 이달 3일 소 브루셀라 의양성축(양성으로 의심되는 개체)판정을 받았다"면서 "해당 농가가 사육하는 나머지 소는 의심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소 브루셀라 청정지역이다. 제주도는 지난 2003년 12월 소 브루셀라 병 청정지역을 선포한 데 이어, 2005년 11월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이 전염병의 청정지역으로 인증 받았다. 제주에서는 지난 2004년 다른 지역에서 반입한 소가 브루셀라 병에 감염돼 살처분 된 것을 마지막으로 청정지역 인증 이후에는 감염 의심축조차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사람에게서는 종종 발병한 적이 있었다.

제주도는 정밀 검사에서 소 브루셀라 최종 양성 판정이 나와도 청정지역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고 설명했다. 국제수역사무국은 전년도 전체 소 사육 두수의 0.1% 이상이 이듬해 브루셀라 병에 걸린 것으로 나타나면 청정지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제주지역 전체 소 사육두수는 3만5000여마리로 청정지역을 유지하려면 브루셀라 병 감염 개체가 대략 35마리를 밑돌아야 한다.

도 관계자는 "첫 의심 증상이 나타난 만큼 정밀검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정밀검사서 최종 음성이나 이후 30~60일 사이 해당 농가가 기르는 나머지 소에서도 이상 증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가 청정지역 지위를 인정 받는 가축전염병은 소 브루셀라, 돼지 오제스키병 등 2개 뿐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제주지역 생활안전사고 분석해보니... 대부분 가정서 일상생활 속 발생

제주지역의 생활안전사고 특성 분석 결과 안전사고는 대부분 집·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연구원 박창열 책임연구원은 지난 5일 발간된 JRI이슈브리프 '제주지역 생활안전 분야 지역안전지수 현황과 향상방안'을 통해 제주지역 생활안전사고 특성, 지역안전지수 관리체계 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책임연구원은 제주지역의 생활안전 분야 핵심지표 분석, 사고 발생 특성 등을 토대로 생활안전 분야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안전지수를 구성하는 핵심지표 기반 관리체계 구축과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정례화를 통한 환류 운영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또 안전 환경 및 수요가 지역마다 상이함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 실태 진단 및 맞춤형 안전개선사업 발굴, 생활안전 분야를 포함한 6개 안전분야(생활안전, 화재, 교통사고, 범죄, 자살, 감염병)에 대한 핵심지표 분석 및 지수 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제주지역 생활안전사고는 집, 가정에서의 상해·열상·중독 유형의 발생비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일상생활 속 사고예방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책임연구원은 "지역안전지수가 지역사회 안전도를 모두 나타낼 수는 없지만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사고다발 지역에 대한 집중관리, 도민들의 인식 개선, 관광지의 안전수칙 위반 단속 강화 등 맞춤형 안전개선사업을 발굴해 핵심지표 기반의 관리체계를 운영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지역사회 안전정책을 가이드하기 위해 2015년부터 지역안전지수를 매년 공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 지역안전지수는 전국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제주지역 안전지수는 타지역과의 격차를 줄여가고 있으나 여전히 전국 평균에 비해 50% 이상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태윤기자 ity9456@ihalla.com



초여름 판포리 포구 초여름 날씨를 보인 6일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포구에서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외국인 폭행한 50대 실형

외국인을 폭행해 한쪽 눈 시력을 잃게 만든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중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B(50)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8일 B씨와 함께 외국인 C(32)씨가 묵고 있던 제주시 한림읍 한 숙박업소에 침입한 뒤 C씨를 폭행한 혐의가 기소됐다.

이상민기자

팽생이모자란 피하다 좌초

제주 해상에 밀려든 팽생이 모자란을 피해 운항하던 어선이 암초에 끼여 좌초한 뒤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4시쯤 제주시 조천읍 조천포구 앞 해상에서 연안복합 어선 A호(3.28급t·승선원 1명)가 좌초했다는 신고를 해경이 접수했다.

A호는 좌초 후 선체 내부에 물이 들어자 전복했다. 선장은 배가 좌초하자마자 주변 어선으로 무사히 옮겨타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상민기자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 잇단 적발

제주시, 3곳 형사고발·6곳은 업무정지

제주시 지역에서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시는 2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연동, 노형동, 애월읍, 한림읍 등 서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673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상반기 지도점검을 벌여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10곳을 행정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무등록자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하거나 무등록자 중개대상물 광고를 위반한 3곳은 형사고발했다. 또 손해배상책임 보증기간이 지났는데도 갱신하지 않거나 중개확인실명서를 갖추지 않은 6곳에 업무정지 처분을,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위반한 1곳에는 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또 법정계시물인 중개업 개설등록증과 보증보험 공제증서 등을

계시하지 않는 등 위반 정도가 경미한 63곳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했다.

올들어 4월까지 제주시 지역에서 이뤄진 토지거래는 9841필지, 658만 6000㎡로 전년 동기 대비 필지수는 9.77%, 면적은 22.23% 감소했는데 이는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 정책의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시 무자격이나 불법 부동산을 이용하면 법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 올해 첫 온열질환자 발생

최근 3년간 환자 222명

도내서 올해 첫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 도내에서 첫 온열질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고열,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등이 나타나며 지속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 탈

진(일사병)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올해 첫 온열질환자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발생했지만 올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변화가 클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017년 81명, 2018년 96명, 2019년 45명이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소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태윤기자

기관고장으로 갯바위 좌초

6일 오후 2시19분쯤 서귀포시 삼달포구 남동쪽 약 200m 해상에서 모터보트가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4t급 모터보트 A호는 레저활동을 마치고 삼달포구로 임항하던 중 기관고장이 발생했다. 이후 바람 등 기상상황의 영향으로 해안가로 밀려 갯바위에 좌초돼 해경에 신고했고, 신

고를 받은 서귀포해경은 구조대와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A호에는 선장 K(46)씨 등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오후 2시35분쯤 인근 갯바위를 통해 탈출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경은 민간어선과 함께 A호를 이초해 오후 7시쯤 삼달포구로 안전하게 이동 조치했으며,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도영기자

감귤묘목

2021년 식재용 예약

* 유라조생	1년생
* 카라향	1,3년생
* 유라실생	1,2,3년생
* 레드향 (무독)	1년생, 2,3년생
* 천혜향 (무독)	2,3년생
* 궁천	1,2,5년생
* 궁천 변이지	1,2년생
* 하례조생	1,2년생
* 한라봉	5,6년생
*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원터프린스 • 미니향 • 레몬
- 탐라향 5년생 (화분)
- 궁천 변이지
- 천전(가와대) 온주 (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 · 만감류 영농안내

- **당을 올리려면**
 - 2차 낙과후 해피한그린 25말+글루칼(포도당 칼슘)50말→일주일 간격 2회엽면시비(농약 혼용가능)
 - 색이 변할때(노지감귤인 경우 10월초)해피한 그린 25말+글루칼 25말 일주일 간격 2~3회 엽면시비
- **양양막(감귤속 내피)을 부드럽게 하려면**
 - 1차, 2차 낙과후 하이휴믹(천연가리)2번 관주 (3300㎡ 당 2번 관주시 4만원 소요)
- **부피과 방지 하려면(만감류인 경우)**
 - 9월부터 송풍기 가동해 아침 이슬이 맺지 않도록 할것
 - 7월부터 한라봉인 경우 15일에 한번 글루칼 50~100말 엽면시비 다른 만감류는 30일에 한번 엽면시비
- **산이 높고 당이 떨어졌을때(하우스 감귤포함 수확 20일전)**
 - 50말에 해피한 그린 3병+글루칼 2포 3~4일간격 3회 엽면시비

(주)포트라 제주지사
곰팡이감귤유통상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